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발행 편집인 조영식
주간 이석우
편집 장 임홍준
인쇄인 최수남

서울캠퍼스(우: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
☎(961)0095, (963)5849
FAX(963)5849
수원캠퍼스(우:449-701)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1
☎(741)5702 (교환:2056, 2850)
직통 (0331)280-2056, 2860
FAX(0331)280-2738

제1012호 〈주간〉 1992년 11월 16일 (월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64. 1. 등록번호 다 12

(1955년 5월12일 창간)

제25대 총학생회장에 김성규군

수원캠퍼스 학생회선거 60.5% 투표율중 2천5백56명 지지

총여학생회장 황윤경양 선출

수원캠퍼스 제25대 총학생회장에 기호1번 정:김성규(건축·4), 부:강지광(임학·4)군이, 제4대 총여학생회장에 단독후보인 정:황윤경(외대 영문·3) 부:김소희(사회대·회계·3)양이 각각 당선됐다. (관련기사 7면)

지난 12일 오후시부터 사회대 시청각실에서 진행된 개표에서 총유권자 6천7백65명중 4천97명이 투표해 60.5%의 투표율을 보인 총학생회 선거는 기호1번이 총투표자 4천97명중 62.3%인 2천5백56명의 지지를 얻어 1천4백82명이 지지를 얻은 기호2번 정:김재권(체과대 체육·4) 부:유병수(사회대 행정·2)군을 제치고 차기 총(부)학생회장에 선출되었다.

김성규군은 총학생회장 당선후 소감을 통해 "만약우와 한 15가지 공약을 지켜내고 어떤 탄압이나 회유에도 굴복치 않는 자주적 학생회 구현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총유권자 1천6백26명중 1천50명이 투표해 64.5%의 투표율을 나타낸 총여학생회 선거는 총투표자 1천50명중 86.9%인 찬성 9백13표를 얻고 황윤경 김소희양이 4대 총(부)여학생회장으로 선출됐다. 총여학생회장으로 선출된 황윤경양은 당선소감으로 "기존 총여학생회의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는 속에서 발로 뛰는 자주적 총여학생회 건설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최초로 직선제로 선출한 총예비여협의회(이하 총예협) 선거는 총유권자 1천6백72명중 총1천2백96명이 투표한데 77.5%의 투표율을 보였으나 개표결과 외대 21표, 체과대 48표 등 배부된 투표용지와 투표함 속의 표사이에 오차가 발생했다. 중선관위는 총여나 총학 투표함에 섞인 표를 분류하고 투표자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개표를 실시했다.

개표결과에 대해 현 총예협장인 신상호(서반아·3)군은 배부된 투표용지에 의하지 않고 선거인명부에 날인된 것을 투표자수로 인정한 중선관위에 이의를 제기, 중선관위는 총예협에 한해 당선 발표를 유보한 상태이다.

한편, 총학생회 후보자였던 기호2번 김재권(체과대 체육·4)군은 이번 선거에서 보여진 중선관위의 중립성에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

김재권군은 중선관위가 선거운동시 경고조치를 내리는 과정에서 현 24대 총학생회가 소식지인 '지름길'을 통해 교통문제해결 대책위 명의로 선거기간중 시내버스유치 결과보고등을 학생들에게 알려 실질적으로 기호1번을 부각시키는 조직적 선거운동을 벌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반면 자신들에게만 기호1번을 비방한 유인물에 대한 경고조치가 취해졌음을 지적했다.

또한 김군은 "선거전에 후보자들의 선거본부가 향한 선전물이 외는 모든 선전물이 제작도 이전 함에도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고조치 공고문이 선거이틀 남아야 공고된 것은 중선관위의 공평성을 의심케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중선관위의 중립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덧붙여 김군은 "이번 선거의 파행는 깨끗이 인정하나 앞으로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과 정파주의에 치우치지 않는 차기 중선관위의 구성마련을 위해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인 한마당 개최

참의료 실현을 위해 마련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인 연대회의(이하 건보련)는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 본교 크레온관에서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인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하고 참의료 실현을 결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보건의료인 1만인 선언을 비롯하여 노래패공연, 개사곡 경연대회 등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건보련은 행사장 앞에서 행사와는 별도로 보건의료개혁안 국회청원을 위한 대국민 서명활동과 우리농산물 판매, 헌혈도 실시한다.

한편 건보련은, 보건의료문제를 올바르게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온 97년 보건의료단체가 모여 지난 8월 발족한 단체로 그동안 보건문제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 대국민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대학주보 축쇄판 5권발행

본사는 지난19일 대학주보 축쇄판 5권을 발행했다.

이번 발행된 축쇄판은 지령 5백99호부터 7백24호 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이는 각 학교별 기관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본사는 93년까지 이번발행된 5권 이외에도 6권에서 10권까지를 계속 발행할 예정이며 10권까지 발행할 경우 지령 1천호까지를 포함케된다.

시청각 교육원 증축 완료

어학강의실 8개 확충 등 기존건물 보수

시청각교육원(A.V center) 증축공사가 지난 11일 기존건물의 보수공사를 끝으로 완료되었다.

한국종합설비 6개월의 공사기간을 들여 완공한 이번 공사에서 시청각 교육원은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289.3평 규모로 △지하1층:휴게실, 인쇄실, 기계실, 보일러실 △지상1층:이중마감으로 시설물 대형 어학강의실 2개 △지상 2,3층:중형 어학강의실 4개가 증축되었다.

서울캠퍼스 관리과는 시청각교육원 증축공사에 앞서 기존건물 3층에 위치한 어학강의실의 방음공사, 라디에타시 난방설치공사와 부대공사로 옥상과 타워포장, 정화조 정틀공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건설부는 이번 공사에서 시청각교육원 난방장치(보일러실)를 설치한 후 중앙공급식 난방으로 호텔생연전문대학의 난방을 계획하였으나, 공사도중 공사비가 예정보다 초과하여 가장대건물 소록 공사와 기숙대, 호텔경영전문대학, 시청각교육원을 연결한 난방공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동트는 새벽' 21일 공연

중앙대 노래패 '동트는 새벽'은 '절망을 뛰어넘어 희망을 찾아' 노래공연을 오는 21일 정경대 111강의실에서 갖는다.

기존의 곡들을 버트와 노래가 포함된 모자이크 양식으로 꾸며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총4막으로 구성되며 '내시경 한보도'등 10곡이 선보인다. 최용석(경제·90)동트는 새벽회장은 "독자적인 역량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공연의 의의를 밝혔다.

'92 전국여성농민대회 거행

추곡수매가 16%인상 촉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은 '쌀 전량수매와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92 전국여성농민대회'를 지난 12일 오후 2시 크라운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총 3부로 구성되었으며 추곡수매가 16%인상과 전량수매와 즉각적인 실시를 촉구하고 여성농민 개혁안의 선포 등 신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찬숙 전북 여성농민회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2부 본행사에서는 김근태 국민회의 김병원원장의 강연과 여성농민의 농업노동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실현 등 총14개항에 걸친 '여성농민개혁안'이 선포되었다.

한향순 전남여농회장은 "여성농민들이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댓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는 농민스스로가 심질을 찾아야 한다"며 여성농민들의 활동을 당부했다.

대국민 선전전으로 마련된 3부는 5분여팀의 전여농회원들과 2백여명의 남총련소속 학생들의 동대문에서 탑골공원까지에 이르는 시가행진으로 이루어졌다.

한의대 '고도극회' '느릅나무밑의 욕망' 공연

수원캠퍼스 한의과대학 연극부 '고도극회'는 '느릅나무밑의 욕망'을 오는 19일부터 3일간 크라운관에서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자연주의의 대표작가인 유진 오닐의 희곡을 무대화한 것으로서 인간의 소유욕과 생욕이 낳은 비극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보여준다.

공연의 기회는 반광현(한의예·2)군이, 연출은 송희옥(한의본·1)군이 맡았고 19, 20일은 오후 5시에 21일은 오후 2시에 공연한다.

'기정원'과 학·연 협동약정 체결

인력·시설·정보자료 연계 활용

조영식총장은 산업기술정보원(이하 기정원) 박충식 원장과 학·연 협동연구석·박사과정 설치를 위한 약정서를 지난 9일 오전 11시30분 총장실에서 체결하였다. 이 약정에서 양 기관은 교육인력, 시설, 정보자료를 공동으로 연계 활용하여 경영 및 기초정보학에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규정지는 한편, 입학자격 및 전형절차, 학위수여는 대학원의 학칙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총11항에 걸쳐 맺은 규정에서 대학원장, 본교총장, 기정원 원장이 위촉하는 각각 3인 내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가 세부사항을 다루기로 했다.

일반대학원은 지난 6월17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교학기술의 전문인력 양성에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동인식하고 일반대학원내 학·연협동연구 석·박사 과정 설치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

학·연 협동 활성화 돼야

校長路

▼'상부상조'라는 말이 있다. 어떤일에 대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의 역량이 부족할 때 서로 도와 목표를 이룬다는 협동의 의미를 담고 있다. 현대의 학문은 사회현실에 적용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된다. 연구에만 매진하던 대학은 이런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고 학문의 실용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한편 실용적인 분야를 집중 연구하는 연구소들은 계속적인 기초학문의 뒷받침과 연구요원 양성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에 양측은 관련전문분야의 인력양성에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90년도 부터 제기되었던 것이 이른바 '학·연 협동연구'라는 새로운 제도이다.

▼본교는 지난 6월 17일, 한국 과학기술연구원과 협동연구에 대한 약정을 맺은 바 있다. 이 약정에서 양 기관은 교육인력, 시설, 실험, 실습 기자재를 공동으로 연계 활용하여 산업체의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할 것을 규정하였고 이에 따른 학사운영은 대학원의 학칙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리고 협동연구가 진행중인 현재는 석사과정 12명, 박사과정 9명이 교육과정에 있다. 또 지난 11월 9일에는 산업기술 정보원과 협동연구 약정을 체결하여 경영 및 기초정보분야에 필요한 전문인을 양성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두 연구소는 주로 시설·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었고 대학원은 전문연구와 인력교육·양성을 맡아 서로간의 효율적인 연구활동, 연구성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현대사회는 도든분야가 다원화되고 전문화되면서 각 학문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대학도 여외는 아니어서 학문과 연관된 여러 일부 사회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미 체결되어 시행단계에 이른 협동연구계획은 대학 학문연구의 활용과 더 넓은 연구기반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현재 학문의 활용과 발전, 대학의 성장을 생각할때 이러한 연구의 협력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교위, 남개대학과 자매결연

양교의 인적교류 활성화될 듯

조정원(정경대교수·정외과) 국제교류위원장은 지난 28일부터 3일간 북경에서 열린 '한·중·일 동북아문제 국제학술토론회' 참석중 중국 남개대학교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양교는 학생·교수의 인적교류 활성화와 박사과정의 학생이 교환수업을 받을 경우 양교의 박사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뿌리대 물리학과 학생회는 오는 16일 A.V센터에서 학예술제를 가최한다.

이번 학예술제는 1부 학술제와 2부 예술제로 나뉘어서 실시되며, 컴퓨터 연구회 Physicon. 자연과학부의 1년 사업평가와, '그래도 지구는 돈다'의 1학년 연극 공연이 실시된다.

찢어진 바지와 우리문화

● 대학생활문화 개선 캠페인(Ⅲ)

무분별한 유행풍조 남발

'찢은 것은 청바지이지만 찢어진 것은 우리 문화임니다'라는 어느 광고문안중에서 대상을 받았던 작품의 제목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속칭 압구정과나 아니더라도 찢어진 청바지와 미니스커트는 대중적인 못차림이 되었습니다.

국적을 알수없는 품종도 유행이라는 이름아래서는 모두 용납되고 묵인되는 풍토입니다.

그저 유행에 휩쓸려 자기 주체의식과 목적의식도 없이 주위의 조류에 따르고 있는 것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점점 서구화 및 일본의 문화가 우리의 생활주변 곳곳에 침투하고 있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요즈음, 다시 한번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찢어진 청바지와 미니스커트를 입는 것은 자기 자유일지 보르지만 없어버린 우리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주보사

대학주보 생활문화 캠페인 ③

자기 표현

60年代!
당시의 청바지는 수입품 아니면 구제품으로 청바지를 하나 사입는다는 것은 당시 대학생 한두달 용돈 그 이상의 가격이었습니다.
청바지 입은 학생은 요즘말로 '부르조아'에 속한다고나 할 수 있었죠. 청춘남녀들은 한번쯤 청바지를 입고 싶어 했으며 어느 누군가 청바지를 입고 캠퍼스에 오면 '캠퍼스 영웅'이라는 별호를 얻기까지 해요즘 생각으로는 상상도 못할, 어떻게 보면 웃지 못할 일들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의식주의 품귀현상에 대한 시대적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마땅히 입을 바지가 없어 군복바지를 검게 물들여 입곤 했으니까요!
남대문 도깨비 시장이나 미제시장에서만 겨우 살 수 있었던 청바지!
이젠 시대도 흘러 어느 누구나 청바지 한벌 쯤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청바지를 오래 입다보면 먼저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이 물이 빠지고 점차적으로 헤지고 결국엔 천이 닳아 실밥이 가늘 가늘할 지경에 이르지요. 그러면 한번쯤 어머님 재봉틀 솜씨를 빌려 깁고 다시 입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의 시대에서 그것은 필수단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허벅지가 닳아 더이상 깁고 입기가 힘들땐 반바지로까지 만들어 입었다고 합니다.
입다가 헤지면 꼬매고 깁어서 입던 청바지, 이젠 깨끗한 청바지를 찾고 입다니!
왜!
개성만으로 대답을 마감하시겠습니까?

미니스커트
스커트는 짧아야 좋다고 합니다.
스커트는 짧을 수록 아하고 감각적임에 틀림없고 이제는 우리네 아씨들도 미니스커트가 어울릴 만큼 늘씬하고 훤출합니다.
보아서 아름답고 개성의 자기 연출이라는 점에서 하등 미니스커트를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유행이라는 물결에 실려서 무분별하게 밀려다니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그 유행이라는 협의의 문화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지구촌화하는 이 마당에 저고리 고름을 입에 물고 수줍어하는 여성상이 미덕인 세상도 아닌데 전통운운이 써알이 먹힐 얘기도 아니지요.
그러나 미니스커트를 입고는 뛰어다니기도, 몇 시간씩 도서관 의자에 앉아 있기도 힘들지 않은가요?
젊음은 합리의 세대!
멋도 좋지만 내면의 아름다운 연출이 더욱 중요하겠지요.

대학주보사